

단일화 '동상이몽' 결국 계파 대결로 가나

새정치 원내대표 오늘 선출

연이를 심야회동 합의 불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선출이 결국 계파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중도 진영의 주승용, 이종걸 의원과 친노 진영의 우윤근, 이목희 의원이 지난 7일 심야 회동에서 당의 화합을 위한 단일 후보 추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날 회동에서 이종걸 의원이 주승용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나는 친노(친 노무현)가 아니라 계파주의적 시각으로 보지 말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노 후보 양보론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걸, 주승용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단일 후보 추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파 논란이 다시 점화되면서 당이 내용에 빠질 수 있다며 중도 진영 주자들의 단일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종걸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단일 후보 추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윤근 의원의 결단이 주목받고 있다. 친노 진영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우 의원이 단일 후보 추대와 함께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계파 논란으로 얼룩진 새정치연합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 의원이 화합을 명분으로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이목희 의원도 경선 출마를 고집하지 않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지원, 인재인 비대위원. /연합뉴스

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우 의원은 8일 "심야 회동에서 합의 추대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단일 후보 추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후보들의 제2차 심야회동이 주목되고 있다. 9일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날 심야회동에서 4명의 후보들이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주자들이 각기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2차 심야회동에서 극적인

단일후보 추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오전까지 후보들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단독 후보 추대보다는 결국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선이 이뤄진다면 주승용 의원은 이미 선언한대로 후보직 사퇴를 하고 우윤근, 이종걸, 이목희 의원의 3파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체적인 판세를 고려한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없어 2차 결선 투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친노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은 우윤

근 의원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도 진영의 표심이 결집된다면 이종걸 의원의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고 해도 경선의 후유증은 상당할 전망이다. 경선 자체가 치열한 계파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이 주류와 비주류, 친노와 비노, 강경파와 중도파 등 당내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치단체 업무 지원 소방헬기 동원 잦다”

주승용 의원 지적

소방헬기가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원 등 재난대응에 관계없는 목적에 지나치게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안전행정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소방헬기 비긴급 항공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헬기가 자치단체 업무지원에 179회 동원됐다.

지원 유형별로는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기타 13건 순이었다.

소방헬기를 동원한 횟수는 강원도가 34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28회), 전남(26회), 대구(18회), 인천(16회)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소방헬기는 모두 26대며 이 가운데 23대는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돼 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14개 시·도는 시·도정 업무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뒀지만, 이는 소방헬기를 편리하게 동원하기 위한 '면죄부'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광주~산월 정체 심각 고속도로 기능 상실 정도”

이윤석 의원 밝혀

호남고속도로 광주 인근 동광주에서 산월까지 구간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정체가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선 29개 구간 중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구간은 ▲동광주~용봉 ▲용봉~서광주 ▲서광주~동림 ▲동림~산월 등 4곳이었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비스 수준 평가는 도로별 적정 교통량을 비교해 서비스 수준을 A~F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차로 수와 연간 교통량 등을 감안해 등급이 정해지며, F에 가까울수록 고속도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이들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기준치인 8만 5300대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손학규 찾아가면 낱은?

친노·비노 대립속 '新쇄신파' 결집나서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인 정계 은퇴와 함께 강진에 접하고 있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두 차례나 찾은 것을 계기로 당내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친노와 비노 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新)쇄신파'가 본격적으로 비노와 중도 진영의 세 규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정 고문의 이 같은 광폭 행보는 중도개혁 성향의 원내외 그룹으로 구성된 '구당구국(救黨救國) 모임'과 함께 의미심장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친노 강경파의 대척점에 선 비노 그룹이 손 고문의 합류를 기폭제로 삼아 본격적인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구당구국 모임'에는 정대철, 이부영, 정동영, 천정배 등 원내 원로와 중진을 비롯해 추미애, 강창일, 이종걸, 주승용, 박주선, 이상민, 노홍래, 문병호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조배숙, 문학진, 장세환, 최규식 등 전직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당구국 모임은 향후 민집모(민주당집권유위향 모임)와의 연대는 물론 초재선 의원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세를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정 고문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특정계파의 사당화를 막는 게 최고의 혁신"이라며 "구당모임은 이를 위한 '신(新)쇄신모임'의 성격"이라며 세력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상임고문 측에서는 "손 전 고문은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라며 "손 전 고문은 일절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 친노 주자가 선출된다면 당내 친노와 비노 그룹의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정당대회에서 친노 주자가 당권을 잡거나 당권 장악이 유력시되면 원심력이 크게 작동하면서 신당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환노위, 기업총수 증인채택 놓고 한때 파행 법사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치열한 공방

12개 상임위 이틀째 국감

국회는 8일 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으나,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했다.

여야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의 적절성,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1심 재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교원노동법 2조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대목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또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건 협의'하도록 한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수정,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험적 발상"이라며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다시 실시해 공표한 점을 지적, "조 교육감이 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평가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몽구 현대차 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이틀째 파행 운영이 계속됐다. 환노위는 전날 같은 이유로 환경부 국정감사가 아예 무산됐고, 이날도 오전 내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오후 들어 야당이 일단 대기업 총수를 불러야 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 1층: 입점운영중
- 2층: 참조은 빌딩
- 3층: 신원은행
- 4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문의 : 010-2007-8848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감정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9-5151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등유대비 68% } 절감
 전기 54% }
 도시가스 42%

비용
고정비용을 줄여라!!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히트펌프보일러 **1644-8983**